

음료에 젤리 넣고 아이스크림엔 펄... 푸딩과 음료의 만남도

# “세상에 없던 맛을 찾아라”... 식품업계, 식감 전쟁중

**코카콜라** ‘미닛메이드 코코구미’  
파인애플 과즙에 코코넛젤리

**해태제과** ‘바밤바 흑당버블티바’  
기존 밤 대신 쫄득한 식감 ‘펄’

**GS25** ‘디어푸딩’  
푸딩+음료... 온도따라 형태 변형

**서울우유** ‘비요프 오! 그레놀라’  
국산 쌀·귀리·호밀 등 담아



해태제과 ‘바밤바 흑당버블티바’



미닛메이드 ‘미닛메이드 코코구미 파인애플’(왼쪽부터), 한국야쿠르트 ‘스파클링 야쿠르트’, GS25 ‘디어푸딩’, 대상F&B 복음자리 ‘45도 과일잼 라즈베리’/서울우유 ‘비요프 오! 그레놀라’ /각사

식품업계가 맛 경쟁을 넘어 ‘식감 전쟁’에 나섰다. 기존 제품의 섭취 방법 및 형태 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감의 차별점을 강조한 제품들이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20일 시장조사기업 이노바마켓인사이트에서 발표한 ‘2018년 최신 세계 간식 보고’에 따르면 사람의 주목을 끄는 요소 중의 하나로 ‘식감(Texture)’이 꼽혔다. 소비자의 구매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업계는 쫄득한 식감으로 씹을수록 쾌감을 주는, 툭툭 튀는 식감으로 먹는 재미를 선사하는 등 이색적인

식감에 초점을 둔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소비자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코카-콜라사 미닛메이드의 ‘미닛메이드 코코구미 파인애플’은 과즙의 상큼함과 함께 씹는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쫄득한 나타드코코(코코넛젤리)가 듬뿍 들어간 과즙음료다. 새로운 맛과 트렌디한 음료를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새콤달콤한 파인애플 과즙에 탱글한 나타드코코(코코넛젤리)를 가득 넣었으며 감각적인 디자인을 사용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열대과일의 상큼함과 나타드코코 알갱이

의 만남을 톡톡 튀는 일러스트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해태제과의 ‘바밤바 흑당버블티바’는 버블티에 들어가는 쫄득한 식감의 펄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바 제품이다. 기존 바밤바에 들어간 밤 대신 쫄득한 펄을, 벌꿀 대신 흑당시럽을 넣어 더 진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기존 흑당 음료에 사용되는 ‘타피오카 펄’은 얼리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끈약으로 만든 ‘브라운 펄’을 활용해 씹는 식감을 살렸다. 인도산 홍차추출 분말을 넣어 향긋한 홍차 향도 느낄 수 있다.

GS25 ‘디어푸딩’은 푸딩과 음료가

결합된 신개념 디저트음료다. 흔들어서 마시는 캐러멜 푸딩 콘셉트로 끈약 분말, 팩틴 등을 함유해 부드럽고 말랑한 푸딩의 식감을 음료로 구현했다. 온도와 흔들는 정도에 따라 내용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

서울우유와 오리온이 손잡고 만든 ‘비요프 오! 그레놀라’는 플레인 요거트와 바삭한 그레놀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농협이 제공하는 국산쌀과 귀리, 호밀 등을 그대로 가공해 만든 그레놀라에 상큼한 사과즙을 더했다. 그레놀라와 요거트가 함께 담겨있어서 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다. 검은콩, 과일, 야채, 카카오, 딸기 5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한국야쿠르트 ‘스파클링 야쿠르트’는 야쿠르트에 탄산을 더해 기존 야쿠르트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탄산을 첨가해 시원함을 살렸다. 유산균 HY2782와 비타민C이 함유돼 있으며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패키지는 야쿠르트 고유의 빨간색을 배경색으로 톡톡 튀는 탄산을 연상시키는 도트무늬를 적용했다.

대상F&B 복음자리의 ‘45도 과일잼 라즈베리’는 상큼한 맛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특징인 라즈베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 당도는 줄이고 원물 함량을 높여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려내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기며 기분 전환하기 좋다. 실제로 프레스 공법으로 만들어진 45도 과일잼은 기존 복음자리 딸기잼에 비해 당도(Brix)가 37% 낮고 과일 본연의 맛과 향, 색, 식감을 살렸다. 1병(200g) 기준 57알(1알 2.1g 기준)가량의 새콤달콤한 라즈베리가 사용돼 입안 가득 퍼지는 과육의 상큼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한한령 풀렸나... 신세계百貨, 中 고객 46% ↑

(限韓令·한류금지령)

면세점 명동점, 본점 매출 76% 상승  
‘인센티브 관광객’ 매출 104% 증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백화점을 찾은 중국인 고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들어 16일까지 중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5% 신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의 중국인 매출은 지난해 11월 13.9% 신장한 데 이어 12월에도 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 건물에 백화점과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본점과 강남점이 중국인 매출을 견인했다. 신세계면세점명동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본점은 1월 중국인 매출이 75.9%나 증가했다.

중국인 인센티브 관광객이 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한 11일 하루 동안 본점의

중국인 매출은 전년 같은 날과 비교해 104.4%나 증가했고, 본점 전체 매출도 10.2% 신장했다. 강남점의 경우 중국인 매출 신장률이 매달 3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명품(67.8%)은 물론 한류스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중국인 고객들이 몰리면서 올해 들어 여성 패션 장르의 중국인 매출은 145.1%까지 증가했다.

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신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는 한국 단체 관광 상품까지 등장한 것. 실제로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은 최근 ‘태국+한국 4박 5일짜리 단체 관광’ 상품을 내놨다. 상품 내용을 보면 방콕을 거쳐 서울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면세점 방문 등 단체 관광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업계는 올해 신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도 풀리고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규제 또한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유커 흥풍’을 이어가기 위해 24일 시작되는 중국 ‘춘절’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인다.

내달 16일까지 은련카드로 100만원 이상 구매한 중국인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10%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알리페이로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3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외식업계 연 9% 성장... 시장규모 180조

커피·음료 업종 독주에 ‘양극화’

외식업계 불황이 거론되지만, 실제 외식시장 규모는 연평균 9% 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커피·음료 업종 독주로 인한 외식업계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김영갑 교수가 컨설팅업체 나이스지니데이터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시장 규모는 18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외식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9.1%에 달했다.

이처럼 실제 외식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외식업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양극화와 업종 간 성장률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종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커피·음료 업종이 2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분식(15.2%), 중식(14.3%), 제과·제빵·떡·케이크(11.7%)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한용수 기자 hys@

## “설 연휴에도 GS25 반값택배 이용하세요”

GS리테일, 명절 이용건수 5배 달해

명절 연휴에 대박 나는 택배 서비스가 있다. 바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반값택배’다.

GS25가 지난해 반값택배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12~15일까지 4일간의 이용 건수가 매월 동기간 평균 이용 건수 대비 약 5배(495%) 많은 것으로 확

인됐다.

GS25는 일반 택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명절 연휴 기간의 택배 수요가 반값택배에 집중되면서 이용 건수가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값 택배는 고객이 GS25 점포에서 택배 발송을 신청하고 수령자가 GS25 점포에서 찾아가는 구조의 혁신적인 택배 서비스로 GS25가 지난해 3월 첫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모델이 GS25의 반값택배 서비스 안내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 쿠팡,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정규직 공채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소프트웨어엔지니어(Software Engineer) 신입개발인재 정규직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공채는 ‘자바(java)’, ‘안드로이드(android)’, ‘아이오에스(IOS)’ 분야로 지원자는 직무별 선호도를 선택해 지원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최대 경력 2년 미만) 또는 예정자,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는 재학생도 가능하다. 전공은 무관하며 일정은 채용 완료 시까지다.

지원자는 온라인접수 후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코딩테스트, 대면인터뷰 순

의 채용 절차를 거친다. 최종 합격 후 2월 내 순차적으로 입사한다. 보다 더 자세한 모집 내용은 쿠팡 채용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채용 직군 주요 업무는 고객이 쿠팡앱에 접속, 상품을 검색하고, 이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후 후기 작성까지 모든 시스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또 고객이 실제 사용할 프론트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며 확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시스템을 설계해 365일 가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선기자